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제788호



올해 18회째를 맞는 세계한상(韓商) 대회가 미려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거점이자 해양관광 도시인 여수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대회 운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본부 협회 신재균 회장이 행사를 다녀왔다. (사진 위: 행사가 열린 세계박람회장 건물을 중심으로 한 여수 바다 전경, 사진 아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개막식, 관련기사 13면)





POINT SPREAD POOLS



PRO-LINE

빅 히트,통큰 상품 그리고 더욱더 큰 당첨금!

미식축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에는 빅 리그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매장은 더욱 바빠집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식축구 한 종목에서만 소매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약 \$380만에 이르렀습니다!

루칸의 트로이 씨는 POOLS 게임에서 Football Pools Card #87 로 \$561,303을 땄습니다. 그는 루칸의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Lucan Convenience 에서 이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경기를 시청하고 휴대폰의 OLG 복권 앱(Lottery App)으로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에 뜬 것을 믿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확인했죠."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스포츠 베팅 한도

OLG의 스포츠 베팅 한도는 소매업자당, 스포츠 복권 상품당, 고객당 (또는 단체고객 당) 1일 \$100 이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 복권 판매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복권단말기 운영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소매업자정책매뉴얼(Retailer Policy Manual) 제4.13절 스포츠 베팅 한도(Sports Wagering Limits)를 참고하십시오.

OLGE DART(Data Analytics and Retrieval Technology)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권단말기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 신속한 모니터링 및 보고 능력은 저희 OLG가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소매점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OLG는 스포츠 복권 상품 거래를 매일 감시하며, 베팅 한도가 초과될 경우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장의 복권 담당 종업원이 이 정책을 숙지하고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십시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OKBA 회 장: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송명현 (Myeong-Hyeon Song)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이두승 / 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류승진 / 이만석 / 장육용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ABC 순)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 (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 (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 (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 (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협의회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 (519)756-0099 Halton & Hamilton 회장 오재근 (905)825-8373 London 회장 오세정 (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홍기 (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 (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 (519)326-1832

〈동북부 지구 협의회 〉

Durham 회장 이현식 (905)579-2500 Huronia 회장 배종민 (705)436-2248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323-4311 Peterborough 회장 이경석 (905)373-0569

K.B.A. 협동조합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Tel (416) 867 - 1444

■ K.B.A. 운영이사: 김대영 (Dae-Young Kim)

(가나다 순) 송명현 (Myeonghyeon Song)

신재균 (Jae Gyun Shin) 이두승 (Doo-Seung Lee) 이만석 (Man Suk Lee) 허창훈 (Chang-Hoon Huh)

■ K.B.A. 감사: 백사열 (Sah-Yeal Paik) (가나다 순) 장해민 (Hae Min Jang)



CONTENTS

- 04 07 / 업소내 베이핑 홍보 판촉물 전시 금지 2019 / 2020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 소집
- 08 09 / 본부협회와 재무장관 면담 조합 주주총회 공고
- 10 11 / 마리화나 함유 식음료 시장 전망
- 12 / 모국정부, 액상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 13 / 세계韓商대회 여수 개최 성료
- 14 / 협회 웹 주소 변경 예정 VITA(전국베이핑산업협회) 성명
- 15 / 소설 '편의점 인간' 소개 필 지구협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토론토웨스트 지구협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 16 18 / 커피의 위력에 새삼 눈뜨기
- 19 / DIRECTORY
- 20 ~ 23 / K.B.A. 협동조합 11월 스페셜

업소내 베이핑 홍보 판촉물 전시 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1년만에 왜?

온타리오 주내에서 전자담배 홍 보 판촉에 제동이 걸렸다. 주 정부 는 지난 10월 25일 편의점이나 주 유소 등에서 이들 제품의 홍보 판 촉을 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 회를 포함해 온주 편의점 업계가 정 부로 부터 크게 한방 얻어맞은 기분 이다. 곤혹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 고 일부 비판자들은 이 정도로 해서 는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유혹을 차 단하기 충분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위의 발표는 크리스틴 엘리엇 보 건부 장관의 입을 통해 나왔는데 온 주 내 미성년자들의 전자담배 소비 증가 추세를 밝히는 새로운 보고서 가 나온 직후의 일이다.

장관은 "미성년자의 베이핑 증가 는 크게 우려할 사안"이라면서 "부

모와 가족들에게 큰 걱정거리며 베이핑이 야기할 잠재적 건강 위협을 막 기 위해 제품의 광고 금지를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초국 내에서 나온 한 자료에 따르면 16~19세 연령대에서 주 1회 이상 베이핑 소비 경험자는 2018년의 5.2%에서 9.3%로 높아졌다. 월 평균 1회 이상 경 험은 같은 연령대에서 2017년 8.4%에서 2018년에 는 14.6%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의료계나 NGO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해 왔다. 금지 발효는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이미 이전 자유당 정권하에서부터 편의점에서의 베이핑 제품 광고 금 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었었다. 작년 7월 1일이 발효시점이었으나 그 전 달인 6월 7일 총선에서 정권이 보수당으로 교체된 직후 새 정부는 금지 관련 시행령 발효를 중단했다. 편의점에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다. 그



▲ 크리스틴 엘리엇(Christine Elliott) 온주 보건부 장관이 지난 10월 25 일 편의점에서의 전자담배 판촉 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해 업계에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리고 수개월 후인 10월 17일 Bill 36 의 발효를 발표했는데 연방에서 금 지하는 규정을 지키는 범위에서 융 통성있게 업소 내의 판촉이나 홍보 물 전시 등을 허용한 것이다. 편의점 업계를 비롯한 베이핑 산업 전체가 새 보수당 정부의 정책에 감사와 환 호로 답했다.

그런데 이런 관대한 정책이 불과 1 년이 지나 철회된 것이니 편의점 업 계는 물론 전자담배 관련 산업 전체 가 크게 당혹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연방 보건당 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베이핑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호흡기 질환에 대한 보고서 의 면밀한 검토에 착수했는데 이 시 점과 금지 발표가 일치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보건 당국이 베이핑과의 상관성을 보이는 질병 1,604건의 사례를 보고한 바 있으며 이 중 34건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급기야는 트럼프 대 통령이 "향가미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직접 발표하는 상황까지 일어났 다. 일각에서는 캐나다도 연방과 온주 정부가 나서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미국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다.

▲ 지난 9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향가미 베이핑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 퍼스트 레이디 맬라니 여사도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에 힘을 보탰다. 현재 미국에는 성인 8백만 명, 미성년자 5백만 명이 베이핑 제품 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에서 밝힌 자료도 단일한 요인 하나로 다시 말해 전자 담배 혹 은 베이핑 등이 모든 호흡기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질병에 걸린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들이 테트라히드로 칸나 비놀 (THC; tetrahydrocannabinol) 성분이 함유된 베이핑 제품을 소비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주목을 끄는 것이다. THC는 마리화나에 함유된 중독성 화

학물질의 주성분이다.

지난달 엘리엇 장관은 주내 모든 공공 병원에 베이핑 관련 중증 폐질환 사례를 보고하라고 훈령을 하달했다. 장관은 "본인의 소관 임무 중 하나 는 청소년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금일 발표한 금지 정책을 내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온주에서는 그러나 전자담배 전문 소매업소나 마리화나 전문 소매업소 에서는 판촉물 전시나 판촉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단, 19세 이상의 방문 객만 입장이 허용된다. 그리고 이밖의 편의점 등 소매업소에서 판촉 광고 를 금하는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의 개정 작업에 착수 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1년만에 정책이 거꾸로 가는데 대해 깊은 실망감과 불만 을 나타냈다. 발표가 있기 하루 전과 발표 당일에 보건부 고위 관계자와 의 전화를 통해 "명확히 검증된 바도 없는 의심으로 베이핑 제품을 무리 하게 통제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협회가 주축 이 된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UKCIA) 심기호 최고운영책임자



(COO)는 "편의점 업계만큼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에 대한 연령체크 성 실도가 높은 곳도 없으며 특히나 OKBA는 평점이 거의 100점 만점에 가 까운 성실한 준법 정신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부이사장이 기도 그는 편의점은 판촉물 전시를 금지하며 전문 베이핑 숍은 허용해주 는 이중 기준은 형평성을 벗어난 정책"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아울러 포

매업소 전자담배 판매 합법화 이후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베이핑 증가 추세 관련한 관련 증거들에 주목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 다. 이사는 "증거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할 것들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캔디나 팝음료 사러 편의점 들락 거리듯이 베이퍼 또한 이런 상품들과 동일한 것들로 인식되는 메시지의





▲ 이런식의 베이핑 제품 광고가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진다.

드 정부 유관 부처들끼리 조율을 거친 결과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밝혔다. 한상 대회차 모국 방문 출장 중인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은 귀국 후 즉각 유관 부처 장관들과의 접촉을 통해 재고의 여지를 만들겠다고 입 장을 밝혔다.

이번 금지조치로 온주도 퀘벡, 매니토바, PEI 등 국내 다른 7개 주가 이 미 시행하고 있는 금지 조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각 주마다 베이핑 제 품에 대한 통제 정책도 압박수위를 다양하게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온주 에서 엘리엇 장관이 광고 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10월 24일 알 버타 주정부는 베이핑 제품에 대한 새로운 세제(稅制)를 도입하겠다고 발 표했다. 이유인 즉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을 어렵게 할 의도인 것으로 풀 이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노바스코시이주 야당은 지난 9월에 향가미 전 자담배 판매 금지를 담은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고 정부 여당도 깊이 검토 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다. 또, BC 정부도 지난 9월에 전자담배 전문 소 매업소 허가에 제한을 둬 업소 수를 조정할 의사를 내비쳤다.

1년 전에 온주 정부가 홍보 판촉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내렸을 때 전국 암협회를 비롯한 연대 조직인 '온주금연행동캠페인'(Ontario Campaign for Action on Tobacco)은 온타리오 전역의 수천개 편의점에서 베이핑 제품 전시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정책을 발동하라고 강력히 요 청했었다.

금연단체들은 당시 전자담배가 미성년자들 사이에 니코틴 중독을 광범 위하게 유포 증가시킬 것이라며 우려성명을 냈는데 이번 온주 보건부 발 표에 대해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 단체의 마이클 펄리 이시는 "정부가 소



위험성을 강조한다. 펄리 이사는 이번 조치가 연방에서 미성년자 베이핑 차단을 위해 광고 판촉 금지하는 수준보다 더 강한 조치라며 추켜 세웠다. 그에 의하면 연방법은 지나치게 주관적 요인이 강해 문제다. 다만 이번 조 치에 있어서도 이미 온주 내에 깔려 있는 수백개의 전문 베이퍼 숍에서 의 베이핑 제품 판매에도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을 심히 폄하하는 듯 한 금연 단체들의 기분 상하는 발언들에 이 어 신민당(NDP)보건담당 전문 의원인 프란시스 젤리나스씨는 "보수당 은 이전 자유당 정부가 애당초 금지하려했던 정책을 중지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뒤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제 아주 작은 조치를 시작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젤리나스 의원은 "미성년자만이 아니라 모 든 세대, 연령층이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도록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 다"고 역설했다. 의원이 다음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향 첨가 전자담배 다. 이런 부류의 베이핑 제품이 미성년자들을 유혹하는 결정적인 제품들 이기 때문에 전문 업소들에서도 향첨가 전자담배를 아예 취급할 수 없도 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방 보건부의 전자담배에 대한 입장을 현 단계에서 한마디로 정리하 면 "베이핑은 위험하며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모르겠다.(unknown)"이 다. 더 정밀하게 연구 분석해야 할 과제라는 말이다. 전국베이핑산업 협 회(VITA; Vaping Industry Trade Association) 회장 다니엘 데이빗씨는 "업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조치를 내린 포드 정부에 대 해 지극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즉각 내놓았다. 회장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물로서의 베이핑 제품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 조치"라면 서 "미성년자들의 전자담배 노출 차단을 적극 지지하지만 성인 흡연자의 정보 입수 기회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데이 빗 회장의 입장은 14면에 자세히 소개) ■

2019 / 2020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 소집

협회 정관 제7장 제21조 이사회 제1항 및 이사회 내규 제 4조 '회의' 제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1차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 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오후 2시

● 장소 : 본부협회 회의실

(175 The West Mall, Etobicoke)

● 안건 : 1) 이사장 선출

2) 선거관리위원 7인 선출

3) 기타사항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사장 이두승



Authorized Zippo Dealer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불법담배 근절 위한 강력한 의지 촉구

본부협회와 재무장관 면담



고통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우측 줄 중앙에 장관과 스탠 조 의원이 나란히 앉아 경청하고 있다.

보부협회가 로드 필립스(Rod Phillips) 온주 재무장관을 만나 불법담 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3일 (수) 11시에 온 주 재무부가 입주해 있는 프로스트 빌딩(Frost Building) 7층 재무장관 집 무실 부속 회의실에서 약 20여 분간 이 주제를 놓고 면담이 있었다. 이 자 리에 정부측은 필립스 재무장관, 스탠 조(조성훈) 의원, 두명의 보좌관 등 4명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재무장관의 의정담당 보좌 의원을 맡고 있 고 재무 관련 정부 여당의 여러 중책을 겸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협회는 심기호 최고 운영이사 겸 협동조합 부이사장, 김재숙 토론토 웨 스트 지구협회장, 사업부 이주녕 직원, 협회 로비스트 피터 시먼 그래스 루츠 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소위 서열로 수상 다음인 넘버 투로 불리는 재무장관을 면담하기는 결 코 쉽지 않은 기회가 재무부측의 제안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만남이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늘어놓기 보다는 불법담배에 대한 인식 제고만을 목표로 이에 집중해서 설명과 건의를 했 다. 과거 자유당 정권의 무관심과는 달리 정품담배만을 취급하는 편의점 업계가 불법담배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 보수당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큰 변화의 하나다. 협회는 이 점을 다행으 로 생각한다면서 협회 회원수가 반으로 감소한 실상을 장관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정을 전했다.

퀘벡이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으로 불법담배 소비를 격감시킨 모

범적 사례도 들었다. 불법담배 운반 차량까지 몰수해서 경매로 처분하고 그 돈을 불법담배 퇴치 정책을 위한 공금으로 사용하는 제도 운영도 좋 은 예로 들었다.

현장에서 직접 겪는 실감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발언에 장관은 큰 인상을 받았고 이해의 깊이를 더 할수있었다.■



조합 주주총회 공고

본 KBA 협동조합은 정관 제 4장 제 13조에 의거 제 37차 연도 2019년 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2019년 12월 3일 (화) 오후 1시

● 장소: KBA협동조합 부속 회의실(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 416-789-7544)

● **주요 안건**: 1) 예.결산 보고 및 승인

2) 감사보고

- 3) 운영이사(4인), 감사(2인) 선출
- 4) 정관개정
- 5) 기타
- 유의 사항: 1. 회의 참석 시 필히 사진 부착 신분증을 지참
 - 2. 조합원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최소 1회 이상 상품 구입한 실적과 보통 주 1주 이상 보유자에게만 해당됨 (조합 정관에 의거)
- 기타 사항: 1, 기존 100불 보통주 보유 조합원은 금번 주총에 참가해 100불 주식 증서를 제시하면 100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10%가산한 110불의 조합 쿠폰 선택도 가능함.
 - 2. 부득이 총회 불참의 경우, 출석위임장을 제출한 조합원은 회의 참가로 간주하고 상기 1항의 100불 보통주 화급을 조치함.

(출석위임장은 실협웹사이트 www.okba.net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조합에 문의해 입수 가능. 전화 416-789-7544. 팩스416-789-5013)

3. 운영이사, 감사 후보 신청자는 후보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을 조합 사무실에서 수령 후, 본인이 직접 2019년11월 27일(수)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후보 등록 완료해야함.

웰컴 투 캐나다

-캐나다 시민권시험 준비반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내용: 1. 웰컴 투 캐나다

■ 일시: 11월 7일, 14일, 21일 (목) / 총 3회기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3.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5. 캐나다의 상징, 경제, 지리

2. 내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이해하기

4.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정부, 사법시스템



캐나다한인여성회 KCWA 노스욕센터: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KCWA 배더스트-핀치: 540 Finch Ave., W. North York KC WA 5 MIXANDER 2019년11월 프로그램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

■ 일시: 11월 4일, 11일, 18일, 25일 (월) / 총 4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오신성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성격유형을 통한 대인관계 소통의 기술
 - 2. 불안하고 화나는 감정 돌보기
 - 3. 관계속 스트레스에서 가벼워지기

■ 일시: 11월 6일, 13일, 20일, 27일 (수) / 총 4회기

4. 효과적인 대화 방법 알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우리 아이 성교육 노하우

오전10시 - 오호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캐나다 성교육

무료이동진료

- 일시: 11월 5일 (화) 오전10시 오후3시
- 장소: KCWA 노스욕센터 사무실
- 담당: 아웃리치워커 주명숙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자궁경부암 검사
 - 2. 질염검사 3. STI검사
 - '선착순 15명 'OHIP카드 없이도 진료가능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고등학교 교사와 함께하는

■ 일시: 11월 7일 (목) 오후6시 - 오후8시

■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 (문의: 416-340-1234)

2. 고등학교 선택 시 주의할 사항

3. 고등학교 전학 관련 정보

■ 내용: 1. 온주 고등학교 소개 및 각 학교별 특성과 장단점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온주 고등학교 진학 안내

일상에서 겪게 될 수 있는 형법에 대한 이해

- 일시: 11월 28일 (목) 오후6시 오후8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
 - 2. 폭력형 범죄의 범위
 - 3. 실형이 선고되는 청소년 범죄의 유형
 - 4. 유죄판결에 따른 캐나다 신분

온타리오 오리엔테이션 -활기차고 안전한 생활

- 일시: 11월 15일, 22일, 29일 (금) / 총 3회기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안전을 위한 경찰 서비스 2. 온타리오 복지 서비스 및 세금 혜택
 - 3. 활기찬 생활과 커뮤니티 참여

데이트 폭력 -정말 좋아해서 그러는 걸까?

- 일시: 11월 20일 (수) 오후3시 오후5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김진욱 (문의: 416-340-1234) ■ 내용: 1. 데이트 폭력이란?
 - 2.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 3. 토론토 경찰과 함께하는 데이트 폭력의 예방법과 안전계획

캐나다 국세청과 함께하는 세금보고 자원봉사 활동 안내

■ 일시: 11월 26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 12월 12일 (목)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 판가 사무실

 당당: 장착상당원 이선경 (문인: 416-340-1234)

 내용: 1. 세금보고 자원봉사활동이란(CVITP)?

 2. CVITP 자원봉사자의 역할

 - 3. CVITP 자원봉사자의 요건
 - 4. CVITP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5. E-file 신청 안내



2. 눈높이에 맞추는 다양한 성교육 노하우

4. 자녀와 성에 관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법

3. 성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 방법



Ontario Canada III Immigration, Réfugiés et Ciloyenneté Canada







주토론토총영사관

편의점에 기회 요인 될까…

마리화나 함유 식음료 시장 전망



▲ 미국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마리화나가 가미된 - 일반적으로 음식에는 2.5~5mg을 넣는다고 함 -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마리화나 첨가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클럽이 늘고 있다는데 캐나다 시장도 조만 간 마리화나 가미 식음료가 성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을 관철한 연방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지 난 10월 21일 총선에서 승리했다. 비록 여대 야소의 안정적 과반 의석 확 보에는 실패했지만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던 만큼 환호할만 하겠다. 이미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작년부터 각 주 정부는 나름의 정책들을 발표했 고 언론에 속속 공개됐다. 실협뉴스도 온타리오를 비롯한 타 주의 정책을 비교해 몇차례 기사화한 바 있다.

자유당의 재집권이 성사된 만큼 초미의 관심사였던 마리화나를 주제 로 주의를 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비즈니스와 연관해 전반적인 흐름 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마리화나 가미 식음료에 촛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이 시장은 상업적으로 아직 개발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일부 전문 가들은 처녀시장(virgin market) 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사 업 전망의 관점에서 보자면 뭔가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도 않았으면서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 횡재나 대박할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말들이 끝 도 없이 나돌기 때문이다. 합법화가 실행되기 2년 전부터 마리화나 관련 주식을 사라는 광고가 넘쳐났고 몇배, 몇십배 오를 것이라는 유혹적인 카 피들이 범람한 것을 상기해보면 이 말이 실감이 날 것이다.

마리화나 가공품의 시장성이나 기회는 일반적으로 예측력 부재에서 비 롯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기술적, 법리적 그리고 여타 다양한 장벽들 때 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2018년에 Bill C-45 법안, 소위 마리화나에 관한 법률(The Cannabis Act) 과 의회에서 통과됐다. 캐나다에 마리화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 이었다. 소매 채널을 통한 마리화나 판매의 합법화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제한된 양에 한해 직접 재배도 가능한 일이 국내에서 최초로 벌어진 것이 다. 가히 마리화나의 일대 혁신을 예고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올해 10월 17일 마리화나가 가미된 가공식품들 예를 들어 빵, 음 료 등등의 상업적 판매가 역시나 합법화됐다. 물론 할 일은 이제부터다. 합법화만 됐지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BD함유 제품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소매업소 선반을 점령할 기미가 보 인다. 한국에서는 변종 마약류로 분류할 가능성까지 있는 CBD제품은 대 마의 일종인 헴프에 포함된 칸나비디올 성분을 투입해 만든 식품을 말한 다. 지난 7월에 뉴욕시는 CBD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기는 했지만 건강 식품 또는 의 약용 대체제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 비즈니 스기회가능성은 높다. 상황이 이러니 어찌 편의점 업계라고 팔짱만 끼고 있겠는가, 안그래도 영업하기 힘든 처지에서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 면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미 온주에서 두 차례나 LCBO 아웃렛 후보지를 발표했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협회 회원들도 신청해 허가를 받아 벌써 술을 판매하는 곳도 있어서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 이래저래 기대가 높아 있다. 마리화나 식품 시장의 한자락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부여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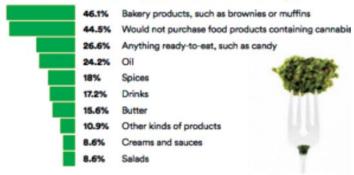
노바스코시아의 주도 핼리팩스 소재 달하우지 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밝 한자료가 흥미롭다. 캐나다 국민들이 가장 경험해보고 싶은 마리화나 함 유 식품류 순위를 조사했더니 46%가 브라우니나 머핀과 같은 제빵류였 다 물론 마리화나가 함유된 식품은 사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혐오론자들 도 44.5%로 백중세를 보였다. 복수응답으로 여하튼 경험해보고 싶은 식 품으로 1위 제빵류 다음에는 캔디와 같은 즉석 소비 주전부리가 26.6% 그리고 오일이 24.2%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양념류, 드링크, 버터, 크림, 소스, 샐러드 등도 관심이 많았다. (그래프 그림 참조)

〈마리화나 함유 식음료 기호도〉

Exhibit 1

CANNABIS FOOD-PRINT

What kind of cannabis-infused products are Canadians hankering for?



Source: Dalhousie University study Manjuana-infused food and Ca consider recreational marijuana as a good ingredient



BAKED GOODS: Traditional BEVERAGES: Cannabis-infus

such as beer and non-al c beverages, are poised ady. In addition, with lega

CANDY: Candies are the number

SAUCES: We could see some



nal value. It conti m, iron, zinc, vitam and C and many other element considered beneficial for good health. For food manufacturers next omega-3 or probio

시장 규모

올해 초 시장조사 기관 딜로이트(Deloitte)가 2,000명의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마리화나와 이를 식재료로 가미한 식품 소비에 관한 설문조사 를 벌인 바 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마리화나 첨가 식음료 시장 규모가 수십 억 달러의 잠재 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이었다.

마리화나 투자 및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아크뷰(Arcview)는 북미주에서 이 시장 규모를 오는 2022년 무렵에 4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캐나다는 이 중 4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식음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폭발력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달하우지 대학교 식품공급 및 정책분야 전문가 실베인 샤를르보와 교수는 미국 사례로부터 가져온 데이타를 집중 조사 했다. 이미 미국은 합법화돼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데이타가 풍성 하다. 분석 결과, 급속하게 캐나다 시장을 파고 들 것이 전망됐다. 앞으로 2년 내에 전체 마리화나 시장에서 식음료 분야 제품이 10% 이상을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



비환각성 칸나비디올(CBD)

변화의 첫 파도는 마리화나 가미 식음료 제품이겠지만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카나비디올 성분의 다양한 변종이나 응용작(헴프에서 추출한 성 분)도 포함될 것이다. 후자는 환각성(hallucinogenic)이 제거된 제품이다. 헴프와 CBD 제품은 미국에서는 합법화됐다. 지난해 연말에 'Farm Bill' 에 서명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일인데 헴프의 재배를 합법화하고 마약 관 련법의 규제에서 헦프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말나온 김에 헴프, 마리화나, 대마(cannabis)등 용어를 정리하자. 우리 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마 (大麻; cannabis)는 여러 종류로 구분되 는데 그중 하나가 마리화나(marijuana)이고 또 하나가 헴프 (hemp) 라 는 것이다. 마리화나에는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hallucinogenic)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이 대량 함유돼 있으며 CBD 함량은 헴프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헦프는 환각 성분인 THC 는 0.3% 미만으로 거의 포함돼 있지 않으며 동시에 CBD는 많이 함유돼 있어 대부분의 CBD제 품의 원료가 되고 있다. 또한 CBD성분은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환각효과는 없는 동시에 통증 이나 발작을 감소시키고 특정 질병과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기본 지식은 이쯤 해두고 다시 주제로 돌아와 미국의 전국레스토랑협회 와 전국요리연맹(American Culinary Federation)이 매년 발간하는 백서 'Chef Survey' 자료에 따르면 미국 요리사 75%가 CBD와 대마 함유 식품이 조만간 트랜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조사에 참가한 요리사는 650명이었다. 미국에서 이미 합법화돼 불을 당겼으니 궁극적으로는 소비 자의 뜨거운 반응만이 남았고 미국 시장의 요동은 결국 캐나다에 고스란 히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기대와 꿈만 부풀릴 것이 아니라 시장 동향과 트랜드에 민감하게 눈과 귀를 열어놓아야 하겠다. ■

매출 40배 폭발 수요! 의심 환자까지 발견…

모국정부, **액상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 서울의 한 전자담배 전문 판매점에서 손님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소개를 하는 모습.

모국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를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질환과 의 연관성이 크게 의심된다는 근거에서다.

지난 10월 23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직접 나서 정부 서울 청사에 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 다. 미국에서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사례가 1,604여 건 이 상 보고됐고 이 중사망이 34건이나 보고되는 등 해외의 심각한 사례들에 주목했고 마침내 한국에서도 지난 10월, 처음으로 의심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연에 서둘러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이었다. 사실 9월달까지 만 해도 정부는 실험을 통한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제'해달라 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중단'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태가 그만 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개월 가까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한 30대 남성에게서 원인을 이로 의심할 만한 폐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추가 의 심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 이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내달에 정밀 분 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작업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관인데 제품회수, 판매 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 (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 E 아세테이 트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 료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이 담배들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 이며 청소년들의 담배 습관을 유도하는 향가미(加香)담배도 단계적인 판매 금 지 조치를 내릴 구상이다.

또한 현재 담뱃잎사귀만을 가지고 만 든 것만 담배로 분류해서 통제 관리 하 고 세금을 부과하지만 줄기나 뿌리 등 을 이용해 만든 담배는 담배로 분류하

지 않아 마구잡이로 범람하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법의 헛점을 보완하 는 작업도 연말까지 추진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제품들의 회 수, 판금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나자 갑론을박 찬반이 갈리고 있다. 전자담 배 예찬론자들은 일반담배 금연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보조수단에 대해 불필요한 통제를 가한다면서 세금올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의혹의 눈 길을 던지고 있다. 그런 반면 주로 미성년자를 둔 부모 세대들은 단호한 정부의 대책이 때맞춰 잘 나왔다고 반기는 입장이다. 어느쪽이든 이런 갈 리는 입장이 나오는 현상은 현재 한창 논란에 휩싸여 있는 캐나다를 비롯 한 선진국과 판박이 모습이다.

한국에는 현재 11개 회사, 36종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모두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며 최근 1년 사이에 매출이 40배 이 상 늘어나는 폭발적 수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신 회장 참가, 편의점 판매 식품류 중심 혐의

세계韓商대회 여수 개최 성료



한 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경제 행사인 '세계한상(韓商)대회'가 해양 관 광 휴양도시인 한반도 남녘 여수시에서 개최됐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4 일까지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올해 행 시는 18회 째를 맞았다. 한상(韓商)이라는 단어는 한민족 혈통에 기반한 재외동포 경제인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화상 (華商)이 지구촌 중국 기업인 들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회를 주최한 재외동포재단의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 60여 개국 한상인 약 6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행사의 주제는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 년"이었다. 해마다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더해온 한상대회는 올해도 기업 전시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혁신 기술 구매상담 회, 한상 비전 콘서트를 열었으며 최근에 보태진 청년채용 인턴십, 일자 리 박람회가 큰 호평을 받았다.

대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약 3만 7천여 명이었고 비즈니스 미팅 12,347건 을 통해 약 2억 달러 가까운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재단측은 한상 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 면접에서 청년 56명이 참가해 40명이 합격하 는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대회 기간 동안 여수시는 국내외 동포 기업 인들에게 여수의 관광과 문화 매력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시작이자 종착점이기도 한 여수의 밤바다를 배경 으로 선상에서 진행된 한상 CEO 네트워킹은 관광을 겸한 격조있는 행사 라는 격찬도 받았으며 지역 경제인들에게 교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했다.

22일 개회행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축 사를 대독했다. 축사 메시지에 걸맞게 이번 행사에서는 개성공단과 평화 경제의 미래, 신남방정책에 발맞춘 무역다변화의 길 등을 주제로 깊은 논 의들이 있었다.

한편, 협회에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이 OKBA회 장 겸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UKCIA) 회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 석했다. 신 회장은 한상대회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올해 대회에 대 한 전 체 소감에 대해 신 회장은 "작년과 유사하게 한류 음식이 강세를 보이는 전체 트랜드에 맞춰 농수산물이 단연 돋보이는 아이템"이었다고 평했다.

회장은 호남 지역의 지자체장을 비롯한 이 방면의 인사들과 접촉하고 편의점 판매 잠재성이 있는 식품류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또, 웰빙 식품 류는 물론 약품과 화장품류로 취급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업종 경계 허물 기로 주목받는 올리브영(제일제당 산하) 매장을 둘러보며 편의점 진화의 현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현재 협회와 사업 제휴를 맺고 있는 쥬얼리 업 체 예노 대표, OKBA프로그램스토어 사업 관련 POS관리업체 진승 대표 등과도 협의를 가졌다. 특히 진승 대표와는 온타리오 외의 지역 특히 벤 쿠버 지역에서 프로그램스토어 확대 기회를 가질 것을 두루 검토했다.

주목되는 또다른 접촉으로는 한마음이주법인(대표 김미현)과 투자이민 관련한 협회와의 제휴 가능성 타진을 들 수 있다. 협회 회원 고령화와 타 민족 업주로의 가게 매각이 협회 외형적 성장에 결정적 걸림돌이라는 점 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해왔던 바이다. 따라서 세대 교체를 위한 젊은층 이민을 편의점 사업을 매개로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다. 신 회장은 조만 간 이 회사 토론토 파트너 회사 대표와 접촉해 구체적 계획을 다듬을 예 정이다. ■

www.okbacanada.com

협회 웹 주소 변경 예정

협회 웹사이트가 새 단장을 하며 주소도 바뀔 예정이다. 현재의 주소는 www.okba.net 이며 앞으로 변경될 주소는 www.okbacanada.com 이다. 사실 지금도 새 주소로 방문해도 기존 주소와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두 사이트가 동시에 운영될 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 존의 주소는 영원히 사라진다. ■



"온주 정부, 지나치게 성급한 조치"

VITA (전국베이핑산업협회) 성명



10월 25일 온주정부가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의 베이핑 제품 광고 판촉 행위 중단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VITA(전국베이핑산업협회)는 이 단체 회장이자 CEO인 다니엘 데이빗씨의 목소리를 통해 비판 성명를 즉각 발표했다. 베이핑 제품 유통에서 편의점의 중요한 역할을 염두에 둔 균형잡힌 주장인만큼 일독을 요한다. 참고로 VITA(Vaping Industry Trade Association)는 전자담배 생산, 공급, 수입, 소매유통 관련 모든 업 체를 망라하는 신생조직으로 국내에서 베이핑 관련한 규모로는 최대이다. 이하 동 단체가 발표한 성명 전문을 의역, 소개한다.

Ŷ 주 정부가 니코틴 함유 베이핑 제품의 판촉 행위를 금할 것이라 는 발표를 했다. 이 금지행위는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입하 는 편의점을 겨냥한다. 판촉 행위 금지는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 대체 물로 인식하고 있는 베이핑 제품에 대한 몇가지 인식을 가로막는다. 즉, 베이핑 제품이 연방 보건부와 세계 주요 보건 기관들도 인체에 덜 해로운 제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베이핑 제품의 합법화는 지난 2018년 5월에 이루어진 연방정부의 결정이고 이 후 연방 보건성은 베이핑 제품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 롭다는 발표까지 했다. 일반 담배에는 유독성으로 암을 유발하는 화 학 물질이 함유돼 있고 이는 담배를 태우는 과정에서(burned) 대부 분이 생성된다는 말도 했다. 보건성은 또 베이핑이 일반담배 중단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면서 증거가 여전히 검토되는 중이지만 일부 증 거들은 전자 담배가 성공률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언급 까지 했다.

2018년과 2019년 발간된 모든 과학적 문헌과 여론 조사 그리고 각 종 보고서와 데이터 베이스 등을 검토하고나서 영국 보건성은 "전자 담배가 일반담배의 위험성을 95%나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사실에도 불구하고 영국 보건성은 수많은 일반담배 흡연 자들이 베이핑 제품이 담배만큼이나 해로운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보탰다.

여타 공중 보건 관련 전문가들은 베이핑 관련 질병들이 소비자들

로 하여금 베이핑 제품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이 들도록 한다는 주 장을 한다. 이는 일반 담배 흡연자가 금연을 위해 (중간단계인)베이 핑으로 옮겨 가는 것을 방해함으써 공중 보건에 더욱 치명적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이같은 그릇된 판단을 바로 잡고 성인 흡연자로 하여금 덜 해로운 대체물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들 소비자들과의 소통 의 몇가지 형태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일반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손님과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그것이다. 이것이 허용돼야 손님들이 대체 상품을 그런 장소에서 끊임없이 대 면할 수 있는 것이다.(*편의점을 염두에 둔 표현)

연방 보건부는 베이핑 제품의 상대적인 위험을 알리는 성명을 내는 것을 고려 중이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편의점에서의 베이핑 홍보 판 촉을 금하는 법령을 마련 중인데 이는 성급한 처사다.

이처럼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베이핑 업계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 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의 미성년자 전자담배 접근 차단 정책을 강력 히 지지한다. 하지만 균형을 맞춰야 한다. 성인 흡연자들이 이 제품 에 접근하는 기회와 미성년자의 접근 차단이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정 책을 원한다.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정부와 협업하고 싶은데 느닷없 는 이번 온주 정부의 지나치게 조급한 정책은 크게 실망스럽다. 우리 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 VITA는 온주 정부의 베이핑 정책에 지 속적으로 생산적이고 투명한 방식하에 관여하고 싶다 ■



소설

편의점 <mark>우</mark>|구ト

河의점 종업원의 일상적 삶을 다룬 특이한 소설이 있다. 작가의 체험 소설인데 제목은 '편의점 인간' (일본어: コンビニ人間)이다. 단편보다는 길고 장편이라기에는 짧은 분량의 이 소설은 쉽게 술술 읽힌다. 작가 무 라타 사야카씨는 이 소설로 제 155회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상을 수상했 다 수상 당일에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뛰고 상을 받으러 갔다는 에피소드 가 있다. 한국어판은 원판이 일본에서 나왔던 같은 해인 2016년에 출간 됐다. 줄거리와 평가 소개는 위키백과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소설 전체를 pdf파일로 입수해 협회 웹사이 트 www.okba.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읽을 수 있도록 했으니 회원 들의 일독을 권한다.

〈줄거리〉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 후루쿠라 게이코는 서른 중반이지만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않고 18년째 같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연애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계속 바뀌는 아르바이트생과 점장과 같 이 일하면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마음의 평안과 정체성을 얻 는다. 지금까지 보통 사람인 척 살아왔지만, 그녀 또한 점점 나이가 들면 서 적당한 나이에 일을 얻고 가정을 꾸린 주위 사람들의 수군 거림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 앞에 백수에 월세가 밀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항상 남 탓만 하는 무뢰한 시라하가 나타나면서 평안했던 그녀의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평가〉

'편의점 인간'은 일본문학진흥회가 선정하는 제155회 아쿠타가와 류노 스케 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이 책에 대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묘사력과 유머가 뛰어났고 편의점이라는 현대적 장소를 무대로 한 게 이상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무라타 사아카는 수상 소감으로 "오늘 아침에도 편의점에서 일하다 왔다"면서 "내게는 성역 같은 곳인 편의점 이 소설의 재료가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 녀는 또 "편의점에 대한 애정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글 쓰기를 통해 인간을 알아가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글을 써왔다"고 말했으 며, 앞으로도 편의점 일을 계속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점장과 상담하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

필 지구협 정기총회 정 · 부회장 선거

GTA 정관 제 3장 9조에 의거, 필 지구협회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래 >

일시: 2019년 12월 12일 (목) 1: 00 p.m

● 장소 : 만두향

(169 Dundas St E, Mississauga) Tel. 905-897-3355

● 안건 : 회계 결산 보고 / 정 부회장 선거

*필 지구협 송년 파티 겸 가지는 정기총회이며 정 부회장 선거도 함께 치르니 많은 회원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석 여부 및 정.부회장 선거 관련 문의는 416-505-0448 또는 905-813-1333으로 문의바랍니다.

필지구협회장 이수봉

토론토 웨스트 지구협 정기총회 정 · 부회장 선거

GTA 정관 제 3장 9조에 의거, 토론토 웨스트 지구협회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래〉

●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1:00 p.m (*사정에 의해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음.)

장소 : 장원식당 (708 Bloor St W, Toronto)

Tel. 416-536-0545

● 안건: 2019년 감사보고

정.부회장 선거 및 이사 / 감사 선출

*정기총회 관련 문의: 416-975-0365, 647-882-5241

〈정,부회장 선거 공고〉

토론토웨스트 지구협회 정 부회장 선거와 관련해 오는 2019년 11월 28일까지 관심있는 후보자들은 등록하기 바랍니다. (문의 : 선관위원장 고정환 647-529-2281)

토론토 웨스트 지구협회장 김재숙



← 님의 커피에 대한 경험을 근사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은 결코 무시못할 부수입으로 보답한다. 이는 편의점과 그 파트너인 유명 커피 체 인사 둘이 동시에 입증해 보이는 바이다. 순전히 잠재적인 시장만 놓고 말하자면 커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커피 는 캐나다 성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품이다. 아주 흔하고 손쉬원 소비재인데 다소 과장하자면 아마도 수돗물보다 소비량이 더 많 지 않을까…국내 커피 시장은 62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곁들인 푸드서비 스 몫 480만 달러까지 보탠 수치다. 전국커피협회(Coffee Association of Canada)의 보고 통계다.

국내 커피 비즈니스 시장은 누가 뭐래도 팀호튼(Tim Hortons)이 지배하 고 있다. 하지만 이 판에 전혀 못 끼어들 것도 아니다. 차별화를 통해 시장 의 일정 부분을 자기 몫으로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해 볼 의미심 장한 수치 하나를 들어보자. 국내 소비자들의 67%가 월 평균 최소 1회 이 상 편의점을 방문한다고 한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노믹(Technomic)의 발 표자료다. 이는 편의점도 강력하게 어필하는 제품으로 커피 매출 기회를 잡으라는 고무적 통계다.

럭키 페니(Lucky Penny)라는 업소 주인 데비 릭스(Debbie Rix) 이야기 를 사례로 들어보고자 한다. 토론토 트리니티 벨우즈 파크 근처에서 편 의점을 운영하는 릭스씨는 커피를 가지고 자신의 업소 단골 손님을 꾸준 히늘여간사람이다. 토론토에서만 맛볼 수 있는 프로펠러 커피(Propeller Coffee Co.)사의 제품으로 승부를 걸었는데 성공이 증명됐다. 자잘한 것 이지만 커피에 첨가하는 크림과 밀크는 저 유명한 카와사 데어리(Kawar-



▲ 커피로 대박치는 편의점 럭키 페니의 주인 데비 릭스씨(맨 앞)와 종업원들

tha Dairy)제품을 사용한다. 역시 이 회사 유제품은 온타리오 특화 제품 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외곽으로 가면 이 회사 아이스크림으로 큰 소 득을 얻는 편의점이 한둘이 아니다. 여하튼 럭키 페니는 온타리오 또는 토론토 로컬 특화 제품으로 승부를 걸었고 멋지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

편의점이라고 해도 되고 만물상이라고 해도 되는 유형의 릭스씨 업소는 친환경 정책으로도 주목받을만 하다. 커피 젓는 플라스틱 막대를 쓰지 않 고 무한 반복 사용토록 금속 스픈을 비치하고 있다. 또 일회용 컵 사용도 절제하기 위해 머그잔을 대여하는 프로그램도 동원하고 있다. 빌려주고 계속 사용하게 하면 일회용 컵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 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반납하면 된다.

릭스씨는 "나의 커피 영업방식은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단호하게 말한 다. 커피 세일은 비즈니스 전체를 견인하는 중요한 아이템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손님의 절반 가량이 일반 편의점 아이템 손님이고 나머지 절반 정 도는 커피 손님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커피 손님으로 와서 다른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사기도 하고 일반 손님으로 와서 커피도 사니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커피 하나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5년 전에 문을 연락키 페니는 기존 고객들의 니즈에 어떻게 하면 예민하 고 정확하게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를 놓고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리고 찾 은 답이 커피였다. "우리는 그냥 폼잡으려고 커피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종업원에게 커피 관련해 전문 훈련을 시켰다. 손님들이 우리 가게 커피가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 인적, 물적으로 제대로 투자했다."





▲ 커피를 비롯한 취급 품목들이 온타리오나 토론토 지역 특화 제품들이다.

고객만족을 철학으로 삼은 결과, 손님의 고객 충성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재사용 머그잔 사용 고객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포인트 적립)을 도입했다. 물론 손님의 판매액에서 일정 몫으로 포인트 적립이 병행 됐 다. 매출도 오르고 고객 충성도 확보에 친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착한 업 소 이미지 정립도 되니 도대체 커피 한 아이템을 가지고 몇가지 효과를 얻고 있는가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신세대와 호흡을 함께 하는 모던한 이미지 차 원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손님 개 개인의 지출액과 포인트 적립액이 표시 되도록 해서 손님 스스로가 확인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적립 포인트 가 50이 되면 커피 한잔 무료 제공이다. 100이면 5달러 오프다.

커피 이외에 궁합을 맞출 여타 푸드 서비스로 신선한 갓 구운 빵을 매일 배달받는다. 요구르트 파르페는 업소 현장에서 직접 만든다. 럭키 페니표 파르페인 셈이다. 손님들은 커피 주문해놓고 기다리며 잠시 다른 진열된 페스츄리들에 시선을 돌린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군침도는 신선한 간식 거리들… 계산대에는 커피에 더해 맛좋게 보이는 빵 반덩이가 올라와 있 다. 이 가게에는 커피에 첨가하는 밀크도 참 다양하게 준비해놨다. 두유, 귀리, 아몬드, 탈지방 혹은 고지방 밀크 등이 그것들이다. 여기에 설탕도 천연 설탕인 스테비아(Stevia), 시럽, 꿀, 여기에다가 계피가루까지 준비 돼 있다. 이는 하찮아 보이는 서비스인것 같지만 "손님이 왕이다"의 격언 을 실천하는 작은 정성이자 철학이며 보다 건강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 소 비자들의 세련된 니즈에 부합하는 적실한 서비스 태도라 하겠다.

편의점에서 커피 사업을 벌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 선정이다. 매 출과 직결되는 문제다. 온갖 종류의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 및 설비 전문 공급사 클럽 커피(Club Coffee L.P.)의 식품서비스 담당 이사 데이브 맥 퀼린씨의 말이다. 하기사 맥퀼린씨만이 아니라 편의점 커피 사업에 관해 조언하는 모든 전문가들 의 이구동성이다. "업소 실정에 맞는 커피 사업 을 꾸리도록 깔끔하고 모던한 비쥬얼에 청결하게 유지되는 설비에 이르 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업소 상품기획의 전문성을 보여 주는 그래픽 디자인 에서부터 고객충성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토탈 서 비스가 가능하다." 업소 전체의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변 경쟁 업 소들을 이길 수 있는 매력적인 업소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말도 보탰다.

그러나 이런 저런 브랜딩 정립을 위한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커피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소비자들이 편리성과 품질의 우수함을 추구한다고 해도 커피 자체가 손님의 입맛을 실망시킬 수는 없 는 노릇이다. "커피 시장은 변화 무쌍하며 고객들의 지식도 해박하며 좋 은 커피인지 맛없는 커피인지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미각이 고급스럽고 세련돼 있다.", "행여라도 안좋은 경험을 하면 정말 완전히 꽝이 되는 수가 있다." 비즈니스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하려면 처음부터 잘하라는 충고다. 대충 구색맞춰 푼돈 추가해서 벌어보겠다는 그런 마인 드로 편의점 커피사업이 시작돼서는 안된다는 경고처럼 들린다. 그도 그 럴 것이 공연히 커피사업한다가 판을 벌였다가 맛없고 불성실해 보이면 손님 발길이 끊기고 이는 안했을 때 그나마 팔던 수입조차 날라가는 판이 니 대충대충은 절대 금물이라는 말이 다.

좋은 커피를 제공하는 좋은 파트너 선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업소 자 체적으로 벌이는 영업 방식과 마켓팅인데 '1달러 캠페인'은 고전적이면서 도 효과 만점이다. 규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1달러 판매하는 전략이다. 일 년 내내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판촉 기간에 이런 방식을 구사한다 는 말이다. 여기에 또 하나 보탤 것이 번들 할인이다. 이 역시 고전적 방법 인데 커피 한잔에 머핀, 혹은 아침 샌드위치를 묶어서 할인가 얼마로 판매 한다. 매우 효과가 있고 특히 아침 시간대에 효과 만점이다.



편의점 주인은 패스트 푸드 산업의 영업 방식에서 모종의 전술을 빌어 올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버거킹 사례를 들자. 올해 3월에 버거킹은 커피 회원가입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 내에서만 통용된 손님 끌기 전략 인데 자사 간판급 커피인 'BK Cafe' 매출 증대의 일환이었다. 회사 앱을 다 운받고 사용자들은 매일 12온스 커피를 단돈 5달러 내고 회원 가입해 즐 길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하루도 안빼놓고 BK Cafe 를 즐긴 손님이라면 한 잔에 17센트에 마신 셈이 된다. 실제로 카페인 열광 손님들에게 이 프로 그램은 정말로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확실히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 가되고 있다. 꼭 이런 방식을 도입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 어도 있으니 힌트만 얻고 각자 편의점 업소 특성에 맞는 커피 매출 증대 아이디어를 창안해보라는 말이다.

■커피에 관한 몇가지 주요 정보 (미국의 사례)

- ㅇ 커피 사마시는 고객의 16%가 고객충성 카드 이용자이며 7%는 모바 일 앱을 이용하고 있다.(맥도널드의 쿠폰 모으기나 스타벅스의 앱을 통한 별모으기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
- 커피 애호가의 하루 평균 커피 소비량은 3.2잔이다.
- ㅇ 소비자 42%가 3주에 1회꼴로 편의점에서 더운 커피나 라떼 등을 구 입한다. 편의점 음료 구입 순위에 서 1위는 탄산음료이고 2위가 커피다.
- ㅇ 편의점에서 커피 주문해 마시는 고객의 38%는 싱글 오리진 커피와 향가미 커피에 관심이 많다.

싱글 오리진 커피 (single origin coffee; 單一種 커피)란?



싱글 오리진 커피를 선전하는 모국의 한 광고물

단일 원산지 커피를 이른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커피, 케

냐 커피라고 부르는 경우다. 각 생산지의 맛의 특색을 잘 표 현해주기 때문에 핸드드립으로 많이 마신다. 특정국의 커피, 혹은 특정 농장이나 지역의 커피 맛과 개성을 만끽하고 싶다 면 싱글 오리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블랜딩 커피(blending coffee)이다. 2 종 이상의 커피를 섞어 새로운 맛을 낸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싱글 오리진 커피에서 구하기 힘든 맛의 완성도나 개 성있는 취향의 맛을 응용해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향은 좋으나 산미가 높은 커피를 가지고 장점인 좋은 향은 유지하 며 산미를 낮춘 부드러운 맛의 커피를 얻기 위해 두가지 이상 의 종류를 섞는 경우다.

○ 편의점 방문객의 56%가 편의점 커피가 전문 커피점 커피만큼 품질이 좋다고 평하고 있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편의점 하면 커피를 떠올린다고 한다. 커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면 여타 푸드서비스에도 긍정적 효과 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커피 매출 증대 7가지 요령

1. 자체 배리스타 고용하기

세련된 입맛의 손님 취향에 맞추기 위해 매출 비중이 높다면 이도 고려 해볼 만하다. 향기높은 크림 맛이 나 시럽 맛으로 손님 맞춤형 커피를 만 들어내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웰빙 옵션 갖추기

커피에 짝을 이룰 웰빙 먹거리가 풍부하면 좋다. 콤보로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머핀, 과일, 통곡 물로 만든 빵 종류,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도넛 등은 커피와 좋은 짝을 이룰 수 있다.

3. 장비 업그레이드

원두 가는 그라인드 머신과 압착 장비들이 최근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재정적으로 허용된다면 교체 해서 작업 능률과 맛을 높일 수 있도 록하는 것도 매출 증대의 중요한 요소다.

4. 인기 제품 중심

일부 유형의 커피는 유행탓으로 매출이 부진하다. 반면 에스트레소 품 목군들의 매출은 최근 비약적 성장 세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종류의 구성 을 인기 중심으로 짜도록 한다.

5. 환경친화적 여건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커피가 착한 커피이기를 바란다. 유기농, 공정거래를 통해 확보된 원두, 커 피관련 부대소모품들의 재활용 가능성 에 이르기까지 환경친화적 업소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6. 찬 커피도 핵심 품목

취급 종목을 다양화해서 그 유명한 콜드 블루 커피도 포함시켜라. 블룸 버그 보도에 의하면 80%라는 경이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냉동 카푸치 노, 스무디 스파크 커피 또한 인기 메뉴다. 특히 더운 날 잘 나가는 품목 들이다

7. 축제일 판촉 활용

매년 10월 1일은 세계 커피의 날이다. 이 날을 앞두고 판촉전을 펼친다. 특별가격, 신제품, 경품, SNS를 이용한 깜짝 이벤트, 여타 식품과의 콤보 할인 행사 등 아이디어는 무진장이다. ■

DIRECTORY

■ KBA 협동조합	■ <mark>갑기</mark>
169 The West Mall, Etobicoke	Metro 360 (416) 285-2050
(협동조합 사무실) (416) 789-7544	News Group(905) 681-1113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905) 272-4339
■ 복권관련	Best Defence (아담 유) (416) 739-8887
AGCO (복권 판매 라이센스 관련)(416) 326-8700	= 70 / 원제 / 제가 / 나원
(800) 522-2876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Fax (416) 326-5555	Bank of Canada(위조지페 관련문의) - (888) 513-8212
OLG(800) 387-0104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음료	기원근영 (416) 222-3200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Coca Cola Bottling Company (800) 241-2653	박효진(보험중개인)(416) 985-5287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국표전(<u>포함</u> 8개편) (410) 963 3267
(800) 387-8400	■ 언론사
Saint Jimmy's Coffee Service (416) 250-9427	한국일보 (416) 787-1111
Sume summy 5 cornect Service (110) 230 3 127	중앙일보 (416) 736-0736
■우유	Globe and Mail (800) 387-5400
SAPUTO(Neilson Dairy) (800) 663-4724	National Post (416) 383-2500
(0.00)	Toronto Star (416) 367-4500
■스넥	Toronto Sun (800) 668-0786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 ,
South Cove (905) 829-3666	■ 장비 설치 수리
Conagra Brands Canada (416) 679-4200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 샌드위치	Cool Air Cleaning (416) 224-0020
Classic group of companies (905) 470-1926	Hi Cool Tech (416) 909-7114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416) 665-1052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 Meat Jerky	Adapt Media (416) 856-4466
Great Canadian Meat (905) 666-9395	_ 75
Conagra 1- (888) 639-7868	■ 기타
■ > 그레 / 캐디	Kocom(416) 769-3532
■ <mark>쵸코렛 / 캔디</mark>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DSC Digital System (416) 255-6549
Mars Canada Inc (800) 565-0147	David Health International (647) 726-1010 허바헬스 (416) 435-5754
Hershey Canada Inc (800) 268-1304	365 Wholesale (416) 931-9002
Mondelez(Cadbury/Christie) (855) 535-5648	Butterfly Fashion (416) 785-5999
Wrigley Canada (416) 442-3298	The Best Inventory Service (905) 359-8560
Wrigiey Carlada (410) 442 3236	원도매상 (416) 661-6664
■ 아이스크림	DavidWholeSale (416) 419-3751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78 Trading (437) 777-7878
Ontario (800) 500-5634	Yeno Trading (647) 967-6561
3 (555, 555 555 1	용역 회사 Tyson Lee (647) 545-0922
■ ATM / Debit	Atlantic Prepaid Card (888) 479-7779
Touch Cash (866) 391-3950	, , , , , , , , , , , , , , , , , , , ,
Managia Calutiana 1 (077) 700 5225	

Moneris Solutions - - - - - - 1 - (877) 789-5335 1Solution - - - - - - - - - - - - - - - - (888) 554-7355





69

Ocean Spray

Cranberry Juice 1.77L-1.87L All Flavours Reg.3.89 Spe.\$2.99 950ml Reg.2.09 Spe.\$1.69



Tomato Juice 1.36L Reg.\$2.49 Spe.\$1.19



Apple Juice 1.05L Reg.\$1.35 **Spe.\$1.19**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4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4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4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9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9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9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49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Clif Bar 68g All Flavours Reg.14.39 Spe.\$12.75 Clif Builders Bars 68g All Flavours Reg.16.69 Spe.\$14.99







Mondelez

Oreo 300g All Kinds Reg.\$3.25 Spe.\$2.25 Chips Ahoy 300g All Kinds Reg.\$3.25 Spe.\$2.25 Ritz 200g Original Only Reg.\$2.70 Spe.\$2.25



Brand Strategy

Popcorners 142g All Flavours Reg.\$2.05 Spe.\$1.89







Kettle Chips

220g All Flavours Reg.\$2.59 Spe.\$1.99



Canned Vegetables 341~398ml All Kinds Reg.\$1.49 Spe.\$0.99





Chunky Soup 540ml All Flavours Reg.\$3.05 Spe.\$2.15 Habitant Soup 796ml All Flavours Reg.\$1.89 Spe.\$1.79 Lindt Sprungli

Lindt Excellence Chocolate 100g All Flavours Reg.\$3.29 Spe.\$2.75 Lindt Classic Chocolate 100g All Flavours Reg.\$2.69 Spe.\$1.99 Lindor Singles 36g All Flavours Reg.\$23.25 Spe.\$17.79 Ricola Bag 75g All Flavours Reg.\$2.49 Spe.\$1.89 Ricola Sticks All Flavours Reg.\$27.69 Spe.\$21.99



Upside Down Squeeze 375g Reg.\$5.59 Spe.\$4.59 White Bear 375g Reg.\$5.59 Spe.\$4.59 White Squeeze Beehive 500g Reg.\$6.35 Spe.\$5.35



Pasta Sauce 410-650ml All Flavours Reg.\$3.79 Spe.\$2.19



Sugar Twin Packets 50's Reg.\$1.49 Spe.\$1.39 Sugar Twin Packets 100's Reg.\$2.85 Spe.\$2.59



Spam Luncheon Meat 340g All Flavours Reg.\$3.29 Spe.\$3.09



Nestle Purina

Wet Cat Fancy Feast 24/85g All Flavour Reg.\$17.45 Spe.\$14.79 Tidy Cat Lightweight Litter 2.72L All Kinds Reg.\$8.65 Spe.\$7.55



Fishermans Friend

Fishermans Friend 16's All Flavours Reg.\$23.99 Spe.\$21.49 Fishermans Friend 24's All Flavours Reg.\$35.89 Spe.\$32.49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9.49 Fiesta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PUP-peroni 75g All Flavours Reg.\$1.79 Spe.\$1.59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75 Spe.\$2.45 Jerky Treats 170g All Flavours Reg.\$2.75 Spe.\$2.49 Alley Cat 2kg Reg.\$3.69 Spe.\$3.29

Meow Mix Original Choice 500g Reg.\$2.25 Spe.\$1.89 Meow Mix Original Choice 2kg Reg.\$6.49 Spe.\$5.39 Milkbone 113g All Flavours Reg.\$1.85 Spe.\$1.59

Always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West Mall Branch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416)867-1444 / F(416)789-5013 Sun. 11:00 - 17:00

Business Hours

Mon. 06:30 - 17:00 Tue. 06:30 - 17:00 Wed. 06:30 - 17:00 Thur. 06:30 - 17:00 Fri. 06:30 - 17:00 06:30 - 16:00







2019 11.3~11.30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11월 3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Take Home



Take Home

Smartfood XL

2/\$**7**







Lay's Miss Vickie's 2/\$3



- ■최소 주문량 \$50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